

「제15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들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걸친 심사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투고된 논문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32편이다.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는 3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논문 1편과 우수상 논문 2편을 선정하게 되었다.

우수논문상 시상식은 수상자 및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8일(수)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기업 규모별 고용자수 분포가 지역의 고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응용	김찬용 임 업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도로 및 철도시설 개발의 적정성 분석: 제조업 부가 가치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유진 김의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상금 100만 원
	노동시장에서의 기업경쟁에 따른 집적불이익과 제조업의 자본축적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및 환경계획연구소, 아시아에너지환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겸무연구원	

「제15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찬용, 임업의 “기업 규모별 고용자수 분포가 지역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응용” 논문은 어떠한 기업 규모 및 기업 규모 분포패턴이 지역고용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한 선도적인 연구다. 특히 고용자수 1~4명의 소상공기업이나 고용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보다는 고용자수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기업 및 고용자수 50명 이상 299명 미만 중기업의 지역고용 창출효과가 더욱 높다는 분석 결과는 향후의 지역고용 관련 연구 및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업적으로 판단되었다. 방법론에 있어서 고용의 양적 성장만을 다루고 있고 집적경제 등과 같은 일부 지역고용 영향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공간계량경제모형에 의거하여 기업 규모별 고용 분포의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설득력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유진, 김의준의 “도로 및 철도시설 개발의 적정성 분석: 제조업 부가가치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논문은 국토 및 지역 분야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최근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도로 및 철도시설 개발에 따른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은 기존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분석에서 간과되었지만 점점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계량화 방안에 대한 제시는 앞으로 도로 및 철도사업 투자에 반영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은 교통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의 증가가 구인·구직의 용이성 제고 등의 집적 경제에 대응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통인프라 투자에 따른 통행비용 감소를 지역 간 접근성의 증가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도로 및 철도의 접근성의 적정 범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접근성의 적정 최저·최고 수준을 계산하였다. 향후 세분화된 제조업의 유형별 교통 접근성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영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업경쟁에 따른 집적불이익과 제조업의 자본축적” 논문은 집적의 외부 불경제의 원인에 관한 실증연구다. 이미 본인의 기존 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기업경쟁이 임금상승을 통하여 집적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 주제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가 노동의 집적만을 보여준 실증 결과라고 하면, 본 논문은 또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의 집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경쟁에 의한 임금 상승분이 자본축적 증가로 이어지는 제조업이 없었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대부분 국내 연구들에서는 집적의 이익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많았지만 집적의 불이익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또한 산업클러스터 형성, 특화산업 전략 등 집적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존 산업 및 지역정책의 효과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활발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 한 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